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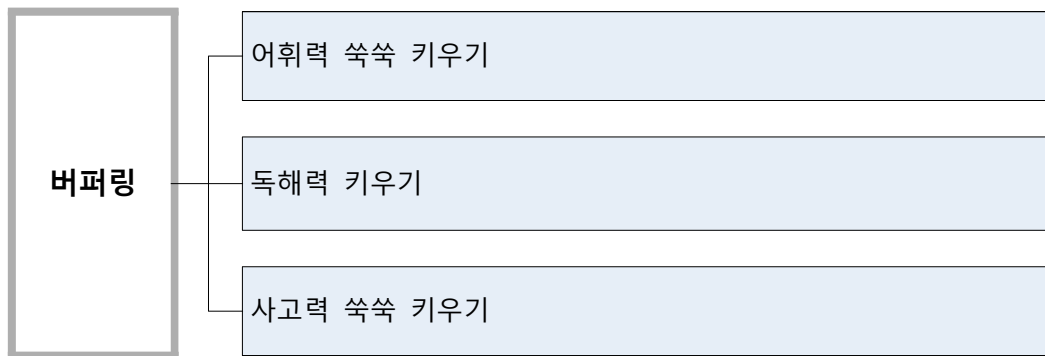
버퍼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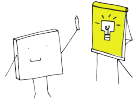
- * 글 : 송방순
- * 펴낸곳 : 단비청소년 * 정가 : 12,000원
- * 분량 : 260쪽 * 대상 : 청소년

· 책 소개

한참 부모님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중3 가온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정 문제로 혼란에 빠진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아빠는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엄마는 이런 아빠를 더는 견디지 못해 가온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가온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억울하기도 하고, 오늘도 내일도 두렵기만 하다. 가출도 해 보고, 엄마도 찾아 나섰지만, 이 모든 게 허사로 끝나고, 결국 열여섯 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에 가온은 절망한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가온은 예기치 못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통해, 그 지독한 삶의 태풍 속에서도 맑은 날을 꿈꾸게 된다. 가온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버퍼링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게 이 책이 가온에게 그랬던 것처럼 불안정한 버퍼링을 멈추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1. 이 책의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번호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1)	
2)	
3)	

2. 『버퍼링』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살다 보면 ☹태풍도 가뭄도 만나게 되지만, 짙하게 맑은 날도 반짝반짝 빛나는 날도 있어. 너의 미래의 날씨도 마찬가지로 기억해!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아빠. 아빠를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엄마. 그리고 원만하지 않은 교우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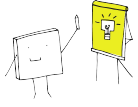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억울하기도 하고, 오늘도 내일도 두렵기만 한 열여섯 살 가운.

이 빠그덕대는 불협화음 속에서 가운은 어떻게 자신의 불안정한 ☹버퍼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1) 가운이는 어떤 태풍과 가뭄 같은 일을 만났나요?

2) ☹버퍼링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3) 살아가며 '버퍼링에 걸린 것 같은 순간'을 만나 본 적 있나요? 어떤 때였나요?



어휘력 쑥쑥 키우기

※ 『버퍼링』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엄마가 말려도 아빠의 똥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나)

- 엄마를 오히려 불쌍한 남편을 잡아먹으려는 ㉠억척 아줌마처럼 대했다.
- ㉡일확천금을 꿈꾸던 아빠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만 것이다.
- 쳇! 코 골기 대회 나가면 우리 아빠와 ㉢박빙이겠네.
- 아빠는 검은 비닐 봉지를 들고 늦은 시간 ㉣털레털레 들어왔다.

1) (가)에서 밑줄 친 똥고집이 다른 의미로 쓰인 문장을 골라 보세요.

- ① 할아버지는 소문난 똥고집이라서 아무도 고집을 못 꺾는다.
- ② 그 사람은 똥고집에다가 소심쟁이, 심지어는 뒤끝까지 있었다.
- ③ 선배가 치킨을 산다고 하면 매년 종로에 있는 똥고집에 데려가곤 했다.
- ④ 으이그, 똥고집이 당나귀 뒤발통 같은 놈.
- ⑤ 정말 이상한 똥고집이라니까?

2) (나)의 밑줄 친 ㉠~㉣ 단어의 뜻을 찾아 바르게 연결하세요.

㉠ 억척

① 단출한 몸으로 건들건들 건거나 행동하는 모양

㉡ 일확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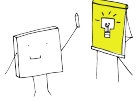
② 근소한 차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박빙

③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음

㉣ 털레털레

④ 일을 해 나가는 태도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몹시 모질고 끈덕짐



어휘력 실력 키우기

※ 『버퍼링』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빠 나이 또래로 보이는 경찰은 엄마에게 충고 섞인 말을 내뱉고 컴퓨터 앞에서 서류 작성하기에 급급했다. 마치 우리 가족이 심심풀이로 신고하고 경찰서에 실적 건수 올려 주러 온 것 같았다. 도대체 뭘 믿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건지, 경찰서에 붙은 가정 폭력 포스터를 떼어 ㉠(갈귀갈귀,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그 뒤로 아빠는 신고하려면 하라는 투로 배짱을 ㉡(팅겼다, 텅겼다) 엄마가 이혼하자고 하면 엄마한테 때리는 것보다 더한 욕설을 퍼부었다. 절대 ㉢(순순히, 순순이) 이혼해 줄 사람이 아니란 건 엄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었다.

“아빠, 그만 좀 하세요! 언어폭력도 범죄라고요.”

“이 자식이 어디서 눈을 ㉣(불아려!, 부라려!) 내가 너를 그렇게 ㉤(가리켰냐?, 가르쳤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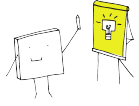
(나) · 건희 아빠는 아들에게 건물 관리법이라도 알려 주듯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 더욱 ㉧의기양양해진 건 건희였다.

1) (가)의 밑줄 친 ㉠~㉢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의 옳은 표기를 골라 적어보세요.

2) (나)의 ㉦의 단어를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3) (나)의 ㉧의기양양의 뜻은 의기가 드높아 매우 자랑스럽게 행동하는 모양 또는 자랑스러워 뽐내는 모양을 뜻합니다. 의기양양의 반대되는 사자성어 ‘의기소침’을 활용하여 새로운 글을 지어 보세요.



독서 후 ① 독해력 키우기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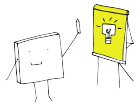
(가)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란 착각. 영원할 줄 알았던 것들에 대한 배신.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 세상에 없던 나를 만들지.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을 쳐도, 자유를 갈망하며 멀리 떠나도 그건 잠시 잠깐의 망각일 뿐. 밀어내고 쏟아 내고 바닥까지 비워 내서 마음의 상처가 잊혀 갈 즈음 새로운 너를 만났어. 나를 바꿔 가는 너를, 너를 가꿔가는 나를.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너를.

(나) 버틸 만큼 버텼어. 내일은 괜찮겠지, 희망도 심어 봤어. 내가 받은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상관없어. 비겁하게 숨진 앓을 거야. 길을 걷다 맨홀에 빠진 듯 멘붕이 와도 또다시 빠져나와야겠지.

(다) 껍데기로 살긴 싫어. 하지만 내 속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나를 비웃으며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도 역시 불안한 눈빛은 숨길 수 없지. 무엇을 찾아 헤매는지 나도 몰라. 나의 방향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 그래도 나는 찾고 싶어 진짜 나를.

1) (가)~(다)의 랩 내용을 통해 화자의 심정이 어떠한지 유추하여 써 보세요.

2) (가)~(다)의 화자는 불안한 날들을 방황하며 안정과 희망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친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여 적어보세요.



독서 후 ② 독해력 키우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또 치려고요? 그래요, 치세요! 차라리 어디 한군데 부러뜨리고 저는 병원에 실려 가고 아빠는 이번에 확실히 감방에 가세요!”

나는 악다구니를 쳤다. 두 번 다시 어설픈게 대응하고 싶지 않았다.

“나 때는 말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때리면 무조건 맞았어! 다 맞을 만하니까 맞는 거고 때릴 만하니까 때리는 거야. 어디서 감히 부모를 신고해!”

(나) 아빠가 뜨겁게 달아오른 팬으로 엄마를 치려 했다. 난 그걸 보고 황급히 막아서다 엄마 대신 맞고 말았다. 그때 내 등에 동그란 프라이팬 자국이 생겼다. 너무 놀라서 뜨거운 줄도 몰랐다. 그저 엄마를 부동켜안고 꼼짝하지 않았다.

그 뒤로 등에 난 화상 자국보다 아빠에 대한 공포가 더 크게 자리 잡았다. 엄마에게 느꼈던 동정심도 공포심에 깔아뭉개졌다.

그때 이후로 큰소리가 나면 무조건 내 방에 들어가 침을 뱉었다.

(다) 나는 곧장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쥐 죽은 듯 엎드려 귀를 막았다. 귀를 틀어막아도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그 와중에도 아빠를 가르치려 애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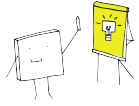
“동네 창피하니까 급게 마시고 들어가 자.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창피하다고?”

아빠는 술을 연거푸 들이켜더니 신발장 위에 있는 우산을 들고 엄마를 교육했다. 난 모르는 척했다. 난 겁쟁이니까. 그동안 충분히 교육받았으니까.

1. (가)-(다)의 내용을 통해 가온이가 아빠의 가정 폭력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써 보세요.

(가)	
(나)	
(다)	



독서 후 ③ 독해력 키우기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게임 도중 우산이 발끝에 계속 거슬렸다. 별 것도 아닌데 게임에 집중이 안 됐다.

‘주인 없는 건데 내가 가져갈까? 아냐. 누가 찾으러 올지도 몰라.’

…… (중략)

‘까짓, 헛 우산 하나 가져간다고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나도 잃어버린 게 많은데 뽀뽀 치지 뭐.’

생각을 바꾸자 훨씬 맘이 편해졌다. 테이블 밑에 오른쪽 발을 쭉 넣어 우산을 앞으로 끌어 당겼다. 우산을 잡는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다. 주위를 슬쩍 보고 우산을 열린 가방에 넣었다. 삼단 자동 우산이라 가방 속에 쏙 들어갔다. 약간의 스릴이 느껴졌다. 마치 게임에서 보물을 되찾은 듯 짜릿함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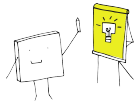
(나) 그날부터 우산을 훔쳤다. 학교에서도 훔치고 피시방에서도 훔쳤다. 심지어 라면 사러 갔다가 슈퍼마켓 우산꽂이에 꽂힌 우산도 슬쩍 가지고 나왔다. 처음엔 진땀이 났지만 두 번째부터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수월하게 해냈다.

비 오는 날 우산꽂이에 꽂혀 있는 우산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다.

1. (가)에서 가온이는 생각을 바꾸자 우산을 훔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가온이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2. (나)에서 가온이는 우산을 보면 어떻게 하였나요?

3. 자그마한 나쁜 일도 자꾸 해서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뜻의 속담을 써 보세요.



독서 후 ④ 독해력 키우기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하지만 염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학교 갔다가 집에 오니 깨진 창문에 붙여놓은 비닐이 뜯어져 있었다. 아무리 허술하게 붙였어도 바람이 뜯어낼 정도는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 집을 염탐하고 간 게 틀림없다. 집에 들어가기가 약간 두려웠다. 다행히 현관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다.

(나) 발을 천천히 집 안으로 내디뎠다. 그때였다.

“야옹!”

얼룩 고양이가 싱크대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마치 내가 침입자가 된 기분이었다. 고양이가 그 걸 증명하듯 내게로 유유히 걸어와 나를 뺨히 올려다봤다. 네가 뭔데 여기 들어왔어? 하는 표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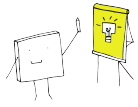
(다) 그날 이후, 학교에 갔다 오면 으레 그 녀석이 있었고 난 녀석이 오지 않으면 내심 기다리기까지 했다. 동네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길고양이가 갑자기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다. 마치 우리집 고양이가 되기 위해 짜잔! 하고 나타난 거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보내 준 거 같기도 했다.

…… (중략)

고양이나 나나 표현은 잘 못 해도 속으론 서로 좋아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다행히 고양이는 킁콩이라는 이름을 몇 번 부르자 ‘야옹’하고 대답했다. 그 후, 무조건 집 앞에 다다르면 “킁콩! 나왔다!” 하며 크게 소리쳤다. 그러자 내 곁에 머물던 외로움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1. 깨진 창문에 붙여 놓은 비닐을 뜯고 집에 몰래 들어온 이는 누구였나요? 그 존재는 가온이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나요?

2. 가온이가 고양이에겐 킁콩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킁콩이로 인해 가온이의 마음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독서 후 ⑤ 독해력 키우기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약속대로 아빠는 저녁에 선풍기를 사다 놓고, 다음 날 유리 가게 아저씨를 불러 창문 유리도 새로 끼웠다. 속이 후련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아빠의 달라진 모습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빠, 오래 걸릴 거 같으면 미리 말해 주세요. 한 달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자신 없어요.”

“내가 없어야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거야.”

“아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몰라. 하지만 자식을 버릴 만큼 모진 사람이 아니란 건 알지. 아마 너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 “아무리 돌아가셨대도 우리를 때린 건 아빠가 잘못된 거야.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집을 나간 엄마도 잘못했다는 건 아냐.”

나는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잘잘못은 따져야 했다. 부모만 자식한테 따지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 말이 맞다. 아빠도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팠나 봐. 보험 회사에서 진단금 찾아가라고 전화 왔더라.”

“진단금? 그게 뭔데?”

“아빠가 간암이란 걸 알고 배를 탄 거 같아. 어차피 병원에서 고치기 힘들다고 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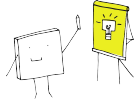
……(중략)

“네 걱정을 많이 한 모양이더라.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널 돌봐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돌아오길 바라고 배를 탄 것 같아…….”

1. 가온이와 엄마는 아빠가 배를 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2. 가온이가 말하는 부모님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엄마	아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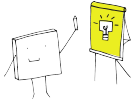
독서 후_사고력 쑥쑥 키우기

※ 『버퍼링』의 인물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에게 응원과 위로의 말을 해 보세요.

<가온>

<엄마>

<아빠>



정답과 해설(예시답안)

2쪽	<p>1.</p> <p>1) 예) 제목은 왜 버퍼링일까?</p> <p>2) 예) 표지에 있는 아이의 표정은 뭔가 화가 난 것 같다.</p> <p>3) 예) 소재목으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책에 나올 것 같다.</p> <p>2.</p> <p>1) 아빠의 가정 폭력, 엄마의 가출, 원만하지 않은 교우 관계.</p> <p>2) (예시답안) 어떤 충격을 받거나 힘든 일이 생겨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를 ‘버퍼링’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p> <p>3) (예시답안) 아빠가 아팠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p>
3쪽	<p>1) ㉢</p> <p>2) ㉠ 억척 ㉣</p> <p>㉠ 일확천금 ㉢</p> <p>㉡ 박빙 ㉡</p> <p>㉡ 텔레텔레 ㉠</p>
4쪽	<p>1) ㉠ : 같기같기 ㉡ : 텅텅다 ㉢ : 순순히 ㉣ : 부라려 ㉤ : 가르쳤냐</p> <p>2) (예시답안) 선생님은 동은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다. *노골적 : 숨김없이 모두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p> <p>3) (예시답안) 내 짝꿍은 아무리 성적이 떨어져도 의기소침한 일이 없었다. * 의기소침 :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은 상태</p>
5쪽	<p>1. (예시답안) 불안하고 상처투성이인 현실을 버티는 것이 좌절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희망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렵고 불안한 현실을 방황하고 있으나 비겁하게 숨지 않고 진짜 나를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느껴진다.</p> <p>2. (예시답안) 어떤 어려움에 놓여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대화를 시도해본다. 그리고 상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버퍼링 속 가온이처럼 가정 폭력으로 인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학대하는 대상자와의 분리를 도와 줄 수 있는 어른 (선생님) 이나 기관을 알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p>
6쪽	1.

	<table border="1"> <tr> <td>(가)</td> <td>자신을 때리려는 아빠에게 어설피게 대응하고 싶지 않아 때리고 감방에 가라며 악다구니를 썼다.</td> </tr> <tr> <td>(나)</td> <td>아빠가 뜨겁게 달아오른 팬으로 엄마를 때리려던 것을 막아서다 등에 화상을 입고 엄마에 대한 동정심이 깔아뭉개질 만큼 아빠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다.</td> </tr> <tr> <td>(다)</td> <td>아빠가 무섭고 겁이 나서 우산으로 엄마가 맞는 것을 모르는 척했다.</td> </tr> </table>	(가)	자신을 때리려는 아빠에게 어설피게 대응하고 싶지 않아 때리고 감방에 가라며 악다구니를 썼다.	(나)	아빠가 뜨겁게 달아오른 팬으로 엄마를 때리려던 것을 막아서다 등에 화상을 입고 엄마에 대한 동정심이 깔아뭉개질 만큼 아빠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다.	(다)	아빠가 무섭고 겁이 나서 우산으로 엄마가 맞는 것을 모르는 척했다.
(가)	자신을 때리려는 아빠에게 어설피게 대응하고 싶지 않아 때리고 감방에 가라며 악다구니를 썼다.						
(나)	아빠가 뜨겁게 달아오른 팬으로 엄마를 때리려던 것을 막아서다 등에 화상을 입고 엄마에 대한 동정심이 깔아뭉개질 만큼 아빠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다.						
(다)	아빠가 무섭고 겁이 나서 우산으로 엄마가 맞는 것을 모르는 척했다.						
7쪽	<p>1. 처음에는 주인이 우산을 찾으러 오면 어찌지 하고 걱정했지만, 우산 하나 가져간다고 해서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나도 잃어버린 게 많으니 썸 썸 해야겠다는 생각에 미치자 마음이 편해졌고 오히려 우산을 훔치는 행위가 스릴 있고 보물을 되찾은 것처럼 짜릿한 감정이 들었다.</p> <p>2. (예시답안) 피시방에서의 첫 우산 도둑질을 시작으로 학교에서도, 피시방에서도, 슈퍼마켓에서도 우산을 훔쳤다. 우산꽃이에 꽂혀 있는 우산을 보면 훔치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고 두 번째부터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수월하게 해냈다.</p> <p>3.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 바늘 찌지에서 도둑이 난다</p>						
8쪽	<p>1. (예시답안) 집에 몰래 들어온 이는 고양이였다. 가온이는 고양이가 우리집 고양이가 되기 위해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자신을 위해 보내준 것 같이 느껴져서 특별하게 여겨졌다. 자꾸만 고양이를 기다리게 되었다.</p> <p>2. (예시답안) 킹콩이란 영화 속의 킹콩은 한 여자만 끝까지 사랑한 속 깊은 동물로, 고양이나 가온이 본인이나 표현은 잘하지 못해도 서로를 좋아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킹콩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킹콩이로 인해 가온이 마음속 외로움이 한 발짝 물러나게 되었다.</p>						
9쪽	<p>1. (예시답안) 간암에 걸린 아빠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죽고 나면 혼자 남은 가온이를 걱정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이유가 아빠 자신 때문이고 자신이 없으면 엄마가 돌아오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배를 탔다고 생각했다.</p> <p>2.</p> <table border="1"> <thead> <tr> <th>엄마</th> <th>아빠</th> </tr> </thead> <tbody> <tr> <td>가온이를 두고 무책임하게 집을 나간 것</td> <td>엄마와 가온이에게 폭력을 가한 것</td> </tr> </tbody> </table>	엄마	아빠	가온이를 두고 무책임하게 집을 나간 것	엄마와 가온이에게 폭력을 가한 것		
엄마	아빠						
가온이를 두고 무책임하게 집을 나간 것	엄마와 가온이에게 폭력을 가한 것						
10쪽	<p><가온> (예시답안) 가온아, 너에게 닥쳤던 모든 불행은 네 잘못으로 생긴 일이 아니야. 엄마가 집을 나간 것, 아빠가 너를 때린 것과 죽음에 이르게 된 모든 일들은 너의 잘못이 아니니까 절대 자책하는 마음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마음속 상처가 언젠가 모두 깨끗하게 나아질 수 있기를 기도할게. 그리고 킹콩처럼 네 외로움을 가져가 줄 좋은 사람들이 곁에 넘치기를 바랄게! 멋진 어른으로 자라줘, 가온아.</p> <p><엄마> (예시답안) 아주머니, 얼마나 힘드셨으면 사랑하는 가온이를 두고 집을 나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온이에게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아주머니의 삶도 너무나 힘들고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가온이를 두고 나온 미안함과 자책감, 남편의 죽음까지 아주머니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웃을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온이 마음 속 상처도 더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길요!</p> <p><아빠> ⇒ (예시답안) 아저씨,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저씨는 가온이와 아주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지요. 두 사람에게 준 상처는 정말 씻을 수 없지만, 하늘에서라도 가온이와 아주머니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p>						

	<p>사랑도 마음껏 보내주세요. 그 마음 표현해주셨다면 아주머니도, 가온이도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아저씨의 기구한 삶도 매우 안타까워요. 아내와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다면 좋았을 텐데. 하늘에서는 아프지 않으시길 바랄게요.</p>
--	---